

어린이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신하는 엄마들

육아경험 바탕으로 작가·출판인 등으로 나서



어린이책 출판사 고슴도치의 엄마작가들이 자신들이 펴낸 책을 들고 있는 모습.

“차라리 아이를 굶기겠다.” 아이에게 오염된 음식을 먹일 수 없다는 엄마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우리사회의 무책임한 가공방법에 탄증을 걸기 시작했다. 이제는 재료를 문제삼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요 몇년 사이 마음의 양식, 책에 대한 갈증과 거부도 엄마들 사이에 붓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아이에게 읽힐 좋은 책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을 만드는 데까지 다다랐다. 즉 재료생산과 가공에 직접 나선 것이다.

기존 어린이책에 대한 불만으로 참작자 대열에 나서

남다른 필력과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엄마들이 출판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어린이책 생산과정에서 관련분야 전공자들만의 독점체제를 허물고 부모세대가 자신의 육아체험을 바탕으로 생산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작가들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당시는 정말 아이에게 읽힐 만한 책이 부족했다”는 공통된 기억과 태생근거를 지녔다. 유명작가가 되겠다는 포부가 없는 것도, 좋은 책을 만들어 내 아이에게만 읽혀도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도 똑같다.

허은순씨는 동화작가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함께 키운 동화작가의 꿈을 이뤘다. 그는 《어린이문학》으로 등단했고, 〈황금팽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들의 음악회〉 등을 썼다. 그림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보와 소감을 나누는 ‘애기똥풀의 집’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한다. “많이 쓰기보다는 정말 써야 할 글을 완성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 그의 작품은 모두 자신의 아이와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을 자산으로 한다.

《바람 부는 날》(비룡소)로 비룡소 황금도깨비상을 받은 정순희씨는 그림작가다. 그는 잘 그렸나, 못 그렸나 하는 단순한 기준으로 딸에게 보여줄 책을 고르다, 아이에게 보여줄 그림을 직접 그리게 됐다. 그가 그림작가로 나선 데는 팬시풍, 학습지풍 등 국적 없는 그림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서 느낀 위기도 한몫 했다. “어떤 소재와 재료를 사용하든 한국적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그림의 철칙이다. 우리 땅에서 우리 생활을 담은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평생 그림책 작가이고 싶다.

아예 출판사를 만든 엄마들도 있다. 이들은 유니텔 주부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1999년 고슴도치를 차렸다. 주부동호회 초대 운영자인 김유경씨가 대표를 맡았고, 뜻을 모은 30~40대 주부 8명이

기획·편집·번역 등을 함께 한다. 지금까지 그림책 13권을 펴냈는데, 올해 출간을 목표로 초등학교 저학년용 동화인 《키가 크고 수수한 새엄마 사라》를 준비하고 있다. 김유경씨는 “주부동호회 회원들의 성원이 대단하다. 그들이 느끼는 대리만족도 상당하다고 이야기한다.

온라인서점의 어린이책 서평란에서는 엄마들의 날카로운 비평을 만날 수 있다. 김희선, 남영심, 배혜경씨는 온라인서점 알라딘에서 활발한 서평 게재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30대 주부로 아이를 기르며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돼 꾸준히 읽고 서평을 게재하고 있다. 수십편에서 수백편까지 그 양도 방대하다.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 위해 실무위주 교육 필요해

엄마들의 창작욕구나 책만들기에 대한 열정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장비어린이의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사계절문학상, MBC창작동화대상, 황금도깨비상 등 공모에 도전하는 엄마들이 점차 늘고 있다. 비룡소 서영옥 팀장은 “엄마들의 작품은 어린이책의 핵심인 ‘아이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응모작들은 흥미진진한 소재에 작품성까지 겸비했다. 응모작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소개한다.

어린이책 전문기획사인 동심여선의 문운희 기획실장은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는 엄마들도 많다. 즉시 상품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글들도 눈에 띈다. 엄마들의 발상은 무척 참신하다. 체계적인 교육만 받는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말한다.

그런데 글이나 그림과 달리 기획이나 편집 분야에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뛰어드는 주부는 거의 없다. 문운희 실장은 어린이책 기획과 편집을 가르치는 실무위주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대중적인 분야가 아니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육아경험을 작품에 녹이는 일은 단순히 엄마들의 열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작품을 들고 찾아갈 출판사가 많이 늘었다”는 정순희씨의 말대로 신뢰할 수 있는 출판사와 독자들이 급증한 것도 큰 요인이다. 또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한 정보력신장도 한몫을 한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감각으로 출판계에 나서는 엄마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차정신기자